

2) 해산무척추동물

조간대 생물상이 순천연안에서 조사된 기록은 없고 『86 자연생태계 전국조사』를 통하여 정리된 전남해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외해로부터 보호된 지역이나 갯벌 조간대의 인접지역은 생물상이 매우 빈약하지만 외해 또는 파도에 노출되는 지역은 생물상이 풍부하고 생물의 크기 또한 일반적으로 크다. 그러나 출현하는 우점종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상조간대의 전형적인 동물은 조무래기따개비·총알고동·좁쌀무늬총알고동이며, 이외에 약간의 갈고동이 서식한다. 상조간대에서 1~2m 하부인 중조간대에서는 굴의 뚜렷한 대상분포가 발견된다. 홍합과에 속하는 진주담치나 굽은줄격판담치의 대상구조가 지역에 따라 발달되어 있다. 중조간대에서는 이러한 굴이나 홍합류의 대상구조 이외에 말미잘류와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먹이를 취하는 복족류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현존량으로 보아 중요한 종으로는 대수리이며, 이외에 보말고동·울타리고동이나 삿갓조개류인 애기삿갓조개·흰삿갓조개가 간간히 출현한다. 군부종류인 털군부나 군부가 출현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중조간대는 상조간대에 비하여 훨씬 많은 종이 출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조간대나 중조간대의 분포는 외해에 면해 있는 해안에서는 그 양상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외해에 면한 해안에서는 검은큰따개비나 거북손이 조무래기따개비와 함께 출현하며, 이밖에 많은 양의 갯강구가 자유로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중조간대에서도 그 특징이 뚜렷하여 해면종류인 황록해면해면·주황해면해면·보라해면 등이 바위의 그늘진 곳에 덮여 있으며, 그밖에 석회관갯지렁이 종류의 출현도 특기할 만하다.